

# 임상치과 기본은 자연치아 유지



정 문 규 교수  
연세대학교 치과대학 보철학교실,  
노인치과 clinic

76년에 치과대학을 졸업하고 보철과 수련생활과 군의관을 거쳐서 82년에 모교인 연세대학교에 등지를 뜬지 벌써 20년이 넘었다. 물론 학계나 치과계에 많은 훌륭한 선생님들이 계시는데 이런 글을 쓴다는 것이 다소의 겸연쩍음이 있지만 필자 나름대로 현재의 치과계를 보면서 느낀점에 대해서 몇자 적어 보려 한다.

## 변화 속에 지켜져야 할 것 있다

현대사회는 변화하여야만 살 수 있다. 얼마전 모 재벌회장이 가족 빼고는 모두다 변화해야만 한다고 이야기 한 적이 있다. 그러나 사회 여러곳에서는 변화하지 말아야 하는 것도 많이 있다고 생각된다. 즉, 지켜야하는 것이 꽤 많은 데도 불구하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지나가는 것들이 꽤 많다.

1~2년 전에 한국방문의 해라는 문구를 크게 곳곳에 걸어놓고 외국인의 한국방문을 유도한 적이 있다. 과연 한국을 방문하면 무엇을 보라는 말인가? 서울 시내에 50년된 건물도 찾아보기 힘들다. 한국주택의 60%가 아파트라고 하는데 이 아파트를 보라고 방문

하라는 말인가? 반 만년의 역사를 자랑한다고 말하지만 반만년 역사의 증거물과 유적, 유물이 과연 얼마나 있는지 알 수 없다.

본인이 근무하는 연세대학교만 하더라도 70년대의 캠퍼스는 참 아름답고 걷고 산책하기에도 좋았고 택시 운전기사분들이 여름에는 나무그늘 밑에서 낮잠을 즐기는 그러한 장소였다. 그러나 많은 발전을 했다는 현 캠퍼스 내는 나무도 풀도 거의 없고 차도로 모든 길을 내어주고 녹지에는 건물들로 가득찼다. 그래서 걸어나가려면 차에 치이지 않을까 조심하면서 다녀야 한다. 과연 누구를 위한 개발이며 발전인지 참 의문스럽다. 사람이 불편하고 자연이 파괴되는 이러한 개발과 발전에 대하여 다시한번 심사숙고를 하여야 할 것이다.

## 몸과 마음이 gentleman 되라

치과계의 이야기로 돌아가서 필자가 본과 2학년 소아치과학 첫 시간에 그당시 교수님이던 현재는 심사평가원에 계신 양정강 상근이사께서 치과의사가 되기 전에 gentleman이 되라고 말씀하셨다. 필자는 현재까지도 앞으로도 이 말을 가슴에 담고 살 것이다. 이 gentleman이라는 의미는 몸과 마음과 예의범절이 바른 사람을 의미할 것이다.

치과의사란 직업이 다른 직업보다 상대적으로 좁은 공간에서 찾아오는 환자만 보는 환경이라서 그런지 이러한 gentlemanship이 더 강조되어야 할 것이고 학교교육에서도 이 점을 강조해야 할 것이다. 사회에서 치과의사를 평가하고 말할 때 gentleman이라

고 표현하여 주면 기분이 좋을 것 같습니다.

요즘 많은 젊은 치과의사들이 group practice를 많이 하고 있다.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하는 한편 너무 과도한 투자나 외형에 대해서는 우려의 생각도 든다.

또한 고급승용차를 타고 다닌다. 이 자동차에 대하여 선배 치과의사가 쓴 글이 생각나서 적어본다. 자가용이 많지 않던 시절 개업한 선배치과의사가 자가용을 사서 병원에 출퇴근을 하려니 환자들에게 미안해서 병원에서 멀리 떨어진 주차장에 주차해 놓고 걸어서 출퇴근을 하였다는 글을 읽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도 이 분이 진정한 치과의사라고 생각된다. 즉 내가 환자들이 내는 치료비로 병원을 운영하고 가족과 사는데 이 환자들은 걸어서 오는 자가용을 타는 것이 죄송스럽다는 그 마음이 필자는 존경스럽다. 즉 이분은 환자를 잘 섬기는 치과의사라고 생각됩니다.

또한 치과대학 신입생면접을 하다보면 대부분의 학생들이 치과대학을 선택한 이유로서 경제적으로 안정적이고 가족과 많은 시간을 갖기 위함이라는 대답이 90%를 넘는다. 돈을 벌기 위해서 치과의사를 한다는 것과 열심히 치과의사생활을 하다보니 경제적으로 좋아졌다. 이 두가지 면은 결과는 같을지 모르지만 과정은 전혀 다르다. 전자의 경우 피곤한 생활의 연속이라고 생각된다. 필자가 생각하는 가장 행복한 사람은 본인이 하고 싶은 일을 하는 사람(직업이 무엇이든지, 수입이 얼마든지)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고 본다.

### 임프란트로 치아 보존 노력 경시대선 안돼

현재 우리 치과계의 화두는 역시 임프란트와 심미에 대한 것이다.

우선 심미치과에 대해서는 생각해 보면 필자 자신도 모든 사물에 대해서 아름다운 것을 좋아하는 것이 사실이지만 가장 심미적인 것은 하나님이 주신 외형과 기능을 제일 근사하게 표현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즉 심미를 하는 치과의사가 6전치의 anatomy를 그려보라고 했는데 잘 못그린다면 이것은 nonsense

라고 생각된다. 또한 내면의 아름다움이 외면으로 나타나고 표현될 때가 진정한 아름다움이라고 생각되며 필자가 보는 노인여자환자들 중에서도 이러한 느낌을 주는 사람들을 종종 볼 수 있다.

필자가 수련생활을 할 때는 치주치료를 잘해서 치아를 save하는 것을 커다란 자랑과 긍지로 생각했다. 임프란트가 많이 발달된 현재는 자연치아를 save하려는 것보다 빨리 발치하고 임프란트 보철을 하는 것이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치과의사들이 많은 것 같다. 임상치과의 기본은 하나님이 주신 치아를 잘 보존하려는 노력이 기본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러한 기본의 중요성이 경시되지 않나하는 걱정이 된다.

또한 치과의사나 환자나 임프란트 보철에 대한 과신에 대해서도 걱정이 된다. 임프란트 보철이란 물론 현재에선 가장 최선의 회복방법이지만 자연치아를 대체하는 하나의 대체물이라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한다. 즉 하나님이 주신 구치부는 교합압에 잘 견디도록 치아하나당 하악은 2개의 뿌리 상악도 3개의 리를 가지고 있다.

### 임상강화된 치대교육으로 변화돼야

학교교육에 대해서는 치과대학 졸업생의 대다수가 임상치과의사를 하는 것을 생각해서 좀더 practical한 교육으로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한다. 대부분의 임상치과의사는 자기의 생각과 계획을 손으로 써 표현해야 한다. 만일 프로야구선수가 이론에는 달인인데 실제 타석에 나와서는 안타를 치지 못한다면 그는 이미 프로 야구선수가 아닌 것이다. 우리나라 대학은 practical한 교육보다는 이론교육이 많은 비중을 두고 있는 것 같다.

Practical한 교육을 위해서는 치과의사국가시험에 반드시 임상실기시험을 보아야 하며 학부교육도 이에 맞춰서 변화해야 할 것이다.

이론적으로 10개를 알고 1개밖에 표현 못하는 치과의사보다는 3개를 알고 3개를 표현하는 치과의사가 더 좋은 치과의사라 생각하며 머리가 명철한 치과의사보다는 마음이 따뜻한 치과의사가 더 좋다고 생각된다.